



심화·이기선

“일체의 생명은 모두 존엄한 것”

은종 불바다. 언일 비추어는 벨레비전의 영상에 불꽃이 치솟지 않는 날이 없다. 재현이 그렇다. 하루에도 수십립, 수백립의 인명이 살생 당하고 있다. 공공건물, 거주공간이 일시에 무참하게 파괴되고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무자비한 현상이다.

또 있다. 일본 관서지방에서 뒤물린 직하지자이다. 고오베(神戸), 오사카 일대가 이수라장이 되고 어비규환의 지옥세계가 되어 버렸다.

체인이 인간이 자아낸 진정이라 할 것 같으면 관서지전은 천재지변이다. 인제이전 천재이전 사람이나 모든 사실물, 공장, 공공시설, 산업기지, 학교, 도로, 고속도로, 철도, 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타고 타버리고 있는 것은 서로가 같은 현상이다.

인간이 발견한 지해, 발명 한 문명과학이 대안하고도 자함을 하지만 전제이나 천변지계에는 어디 손하나 할 수 없는 무용한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목숨은 존귀하다'고 하셨다. 아니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일체의 생명은 모두가 존엄한 것이라 하셨다. 금강경에는 이 세상의 생명의 실재를 난생(卵生), 태생(胎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또한 유급(有畜), 무급(無畜), 유상(有想), 무상(無想) 그리고 비유상리무상(非有想非無想)으로 대별하고 있다. 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무량해(無量海)인가.

아상이 만든 불행

우리는 사람만이 최상의 것이라 자처하고 있으며, 사람만이 잘살면 된다고 아상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자신이나 남에게는 자기기만만이 독립자존하고 호의호식하는 경제생활, 환락생활을 하면서도 고집한다. 이러한 고집이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침탈, 강점하려는 속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이 전쟁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원의 북소리를 울리지 않는 날이 없고 번개 불의 폭발음을 낮추어 본적이 없다. 이 북소리와 번개불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거주를 잃었고, 고아와 노인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18

生命

모든 중생 사랑할때 재난 최소화

이 길바다에서 노숙하면서 찬서리를 맞아야 하였다. 그런 때 부처님은 '태생, 난생 아니 비유상리무상의 생명까지 안전한 열반(涅槃)에 들게 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한 사람도 무어열반에 들게 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소식은 무슨 말인가. 보통 범부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소식이다. 보통 범부 중생의 살림은 조그만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 자신이 하였다고 뽐내고 싶은 아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구류(九類) 중생을 일시에 무어열반에 들게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집착이나 자량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 이러한 일은 대승의 행위로 한 것이고, 또 한 대승의 행위 그 자체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주상(無住相)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생명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색, 무색, 유상, 무상의 생명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질적 생명체 이것은 유기체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무색이란 무엇인가. 물질적이지 아닌것, 즉 비물질적 생명으로 돌려 해석해 보면 될 것이다. 무기질 생명이 아닐까. 무기질은 눈으로 감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유색적이고 태안습화에 국집되어 있는 사교현상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질 생명, 아니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마저 생명체라고 하신 부처님의 여실지견(如實智見)에 그저 경탄할 뿐이다.

부처님의 생명철학

우리가 부처님의 깨침을 경탄만으로 우려려 모시는 것은 불교인으로 대단히 소홀하고 경솔한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구류 중생을 자인(慈愍)하는

자비와 슬기를 가슴속에 이끌어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마저도 사랑하고 애민하지 않는 이 마땅에 부처님의 자비무량심을 터득함으로써 인간적인 인간, 더 나아가 중생살수의 자비가 꽃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구 도처 삼재(三災) 부단히 초래된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화되면 자연적 재난이 지멸(止滅)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일체중생을 안전한 세계에 전하게 하여도 나는 한 중생도 멸도(滅度)시킨 것이 없다는 대승적 생명사상을 확신하고 실행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상은 증오, 경쟁, 전쟁이다. 무아상은 실수, 두호, 평화이다. 우리는 무아상의 종교적 신념으로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고 부처님 가까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철학이 아닐까.

나의 '하늘새'는 자유와 방생

산문박의 100년

조각가 박찬갑

새야 새야 하늘새야
어느날 나를 찾아 오려느냐
나는 너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가 되어
기쁜 노래를 부르자.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라는 호젓한 마을, 읍지산에 쌓인 눈은 바람에 풀풀 먼지처럼 날리는데 짐작할 것 겨울길은 구두 밑창에 달라 붙으며 말을 한다. '이곳은 아무나 오느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듯하고 '자신 없으면 돌아 가라'고 하는 것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내 산비탈 아래 단아한 집채를 만나면 걸어 온 진흙길의 이야기들은 머리속 어느 구석에도 남지 않게 된다. 희고크레한 하늘 저 편으로 열두어 마리쯤의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 현집을 들은 듯한 목재 더미 옆의 집채는 조각가 박찬갑씨의 작업장이다. 농촌

인간이라니. 주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일까. "하늘을 전부터 하늘새를 테마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여자 아이가 유괴되어 생매장 당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나의 딸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솟아 오르는 걸 느꼈고 그 불행한 아이의 영혼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새를 날려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시작된 박씨의 작업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조고 다듬고 갈고 깎아 붙이는 작업, 그 긴 여행에서 박씨는 수 많은 하늘새들을 나무껍질 구리건 브론즈이전 되는대로 만들어 날려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새는 그 마음의 자유이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의던 타의던 구속되고 속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작업에 임하는 그의 자세. 박씨는 그것이 바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깨우침'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나무속의 인간도 보고 나무속의 새도 만나는 것이라 이야기다. 박씨는 자신이 빚어내는 새가 감성들의

나무 구리등에 생명 넣기 "몰두" 장애인에게 조각 가르치며 '희망' 심어

마을의 이웃집 아저씨같이 서글서글하고 다부진 체격을 지닌 주인이 열어 준 문안에는 아! 새, 새들이 가득하다. 아무나 드나들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자신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곳을 열거해 얘기하는 듯한 저 새들의 부동지체. 방치, 정, 글, 대패를 속이 어지러운 작업실의 사방에 아무렇게나 자리한 새들은 주인 박찬갑씨의 꿈인 것이라 생각이 든다. 손질 안된 나무토막에 걸터 앉아 자세히 살펴본다. 새들은 저마다 울고 있다. 뒤물린 모가지로 울고 있고 부러진 날개죽기로 울고 있다. 날개를 잃어버린채 갇혀있어 울고 있고 밖으로 반쯤만 나간채로 울고 있다. 여러 동질한 객의 모양새를 바라보는 주인 눈빛이 그윽해 지는 순간 질문을 던진다. "이 새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하늘새'란 작품제목은 놔두고 하필

저마다 자신의 하늘을 잃고 사는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하늘을 깨닫고 그 하늘의 공활함 속으로 자유로이 날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해탈이란 말도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 자비무량심 실행을 놓은 새들이 인간인 것인지를 알듯한 설명이다. 박씨가 날려 보내는 하늘새, 그 새들은 그저 우리들의 삶 언저리를 순회하다가 제갈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새가 아니다. 박씨는 장애자들을 모아 조각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들이 스스로 하늘새를 만들어 삶의 슬픔을 날려 보내도록 도와주며 참인간의 삶과 행복을 경험 하기도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하늘새를 통한 인간방생의 실천이었다. 아직 그는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 박씨는 누구와의 대화에서 "나는 조각가 이전에 사람"임을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인간의 삶에 대한 애

취이 남다른다. 장애인들과의 끈끈한 인연 역시 그런 애착의 산물일 것이다. 91년 이후 세번이나 개최한 '저 높이 나는 새의 슬픔을 그대는 아시나요'전에서도 그의 사랑에 대한 애착은 뚜렷이 배어 났었다. 그런가하면 또 박씨는 30년을 몰두 해온 조각가로서의 자기완성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 하나의 테마를 6년이 넘게, 아니 무한정이라도 붙들고 캐내겠다는 다부진 의욕이 온 몸에 깔려있고 있다. "오늘날의 작가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없는 것이 마음이라면 있는 것은 오히려 겁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없는 것을 찾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창작론은 지극히 선적이다. 원 집이나 폐사를 뜯어낸 기둥 서까래 등 마루들을 얻어다가 작업실에 늘어놓고 그 체재한 목재들과 수없는 대화들 한 후에 최대한 원형의 미를 살리며

의 <만다라>에 나오는 '병축의 새이기도 하고 결프전의 공포에 질린채 폐유를 뒤집어 쓰고 죽은 새이기도 하다'고 덧붙인다. "그렇지만 보다 분명한 건 이 새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지해를 일깨워 주는 하늘새라는 사실입니다."박씨가 강조하는 하늘새의 의미는 두고두고 돌아야 할 화두임이 분명하다. 저녁 햇살이 사각으로 비쳐드는 작업실. 주인이 마음이 넉넉하여 덴마크 대서관들이나 이천군 기관장들이 자주 찾아와 답사를 나눈다는 그 작업실의 주인은 올해도 몇번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나무토막을 조고 깎아내는 부주한 주인이 손놀림이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다. 다시 짐작하는 길로 발을 내딛으며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있다. "인간은 언제 마음의 자유를 찾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 하늘새에게 물어보시오. <염연태 기자>

1995학년도·신(편)입생 모집요강

동방 불교대학

(佛敎學科·梵唄科·佛敎美術科·韓醫豫科)

—4년제 주간, 2년제 및 통신과정 병설—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4년제 대학교육 체계와 종합적인 불교 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울 바라고 있습니다.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교리와 불교 경전을 교육	60명 (통신생 포함)	4년제
법 폐 과	전통불교의식인 상주권공을 교육	15명	2년제
불교미술과	전통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25명	4년제
한의예과	한의학개론·생리학·분초학개론 등 미국 결연 대학 한의학과 예과 과정을 교육	40명	2년제

②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2) 불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전형방법

- (1) 필기시험(불교상식, 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공통)
- (2) 한의예과는 국어·영어·수학·화학

④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1월 16일 ~ 2월 17일

(평일은 10:00~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⑤ 전형일자: 1995년 2월 19일(日) 10:00~18:00

⑥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4) 주민등록등본 1통
- (5)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통
- (6) 반명함판 사진 6매
- (7) 전형료: 30,000원(단, 불교미술과는 40,000)

⑦ 참고사항

- (1) 한의예과 수료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사우스배일로 대학과의 교육 결연에 의거, 사우스배일로 대학에 편입하여 소정의 학위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2) 미국 결연 대학에서는 한국어로 교육받고 시험도 한국어로 응시할 수 있음.
- (3)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 (4) 강좌 개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임.
- (5) 통신생은 월 1회 1박 2일 출석교육과 하계·동계 방학 중의 2박 3일 출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6) 기숙사 운영(지방학생은 문의 바람)

편입생 모집요강

- 1. 응시자격
 - (1) 본대학 2년 수료자
 - (2) 강원 대학교 수료자
 - (3)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 (4)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 2. 기타
 - (1) 응시자의 수학 경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토록 함.
 - (2) 4년제 이수자에게 1급 중앙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예전 중등 법계를 졸업함. *원서교부 등 기타 사항은 상기 신입생 요강에 준함.